

조선

유류

풍

권저삼

서울
신문
관
합

Blue

Cyan

Green

Yellow

Red

Magen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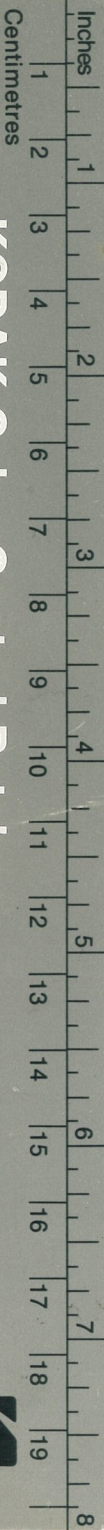
White

Brown

Black

KODAK Color Control Patches

©Eastman Kodak Company, 1977



옥루몽권지삼목록

玉樓夢卷之三目錄

데이십구회 : : : : : (一)

망선덕에로군이도스를맛고
래청궁에던지왕모를모위다

望仙臺盧均迎道士
太清宮天子會王母

데삼십회 : : : : : (二四)

래산에올나던지봉선향교
hing궁에드러가선랑이탄금홍다

登泰山天子封禪
入行宮仙娘彈琴

데삼십일회 : : : : : (二九)

로괴광녕성에길이모라오고
호병이산화암에크게들네다

虜騎長驅廣寧城
胡兵大鬧散花庵

데삼십이회 : : : : : (三七)

괴이흔뵈를써선랑이오랑캐를속이고
큰의를섬내여태예군스를니르기다

用奇計仙娘誑胡
奮大義太爺起兵

데삼십삼회 : : : : : (四五)

항서를던져로군이나라를비반하고
털기를모라홍뇌경필을범하다

投降書盧均叛國
驅鐵騎匈奴犯蹕

데삼십사회

〔六一〕

명던지몸을버셔져주에드리가고
동장군이의를퍼선우와싸호다

明天子脫身入徐州
董將軍伸義鬪單于

데삼십오회

〔六六〕

연왕이겨서를전하야남방군스를모호고
선위군스물너진인을겨동하다

燕王馳檄聚南兵
單于退軍激真人

데삼십륙회

〔八一〕

홍표외만이굉던포를못고
양원취좌현왕을수죄하다

紅嫖姚暗埋轟天砲
楊元帥數罪左賢

데삼십칠회

〔九三〕

청운도시넛동학으로도러가고
야를선위동편성으로다라나다

靑雲道士歸故洞
耶律單于走東城

데삼십팔회

〔一〇六〕

진왕이만히산동성을취하고
던지친히북홍노를치다

秦王暗取山東城
天子親征北匈奴

데삼십구회

〔一一四〕

하란산에원취개가를알외고
선우티에호왕이드러와조회하다

賀蘭山元帥秦凱
單于臺胡王入覲

데스십회

〔一二六〕

명던지크게산양야호왕을모도고
홍스매검술로악호를잡다

明天子大獵會胡王
紅司馬劍術捉惡虎

데스십일회

〔一二九〕

홍랑이명비묘를중슈하고
위씨츄조동에서괴로움을받다

紅娘重修明妃廟
衛氏受苦楸子洞

데스십이회

〔一五三〕

황쇼제꿈에상청궁에놀고

黃小姐夢遊上清宮

위부인이 악혼창조를 밧구 아회성하다

衛夫人回甦換惡腸

데스십삼회

(二六七)

선숙인이 산화암에 기도하고
녀도식츄즈동에 만히 드러가다

仙淑人祈禱散花庵
女道士潛入楸子洞

데스십사회

(二七六)

선랑이 장신궁에 글을 올리고
쇼제미설 덩에 향을 살으다

仙娘獻書長信宮
小姐焚香梅雪亭

데스십오회

(二八六)

래메상춘 원에 꽃을 보고
련랑이 비파를 의지하야 만가들볼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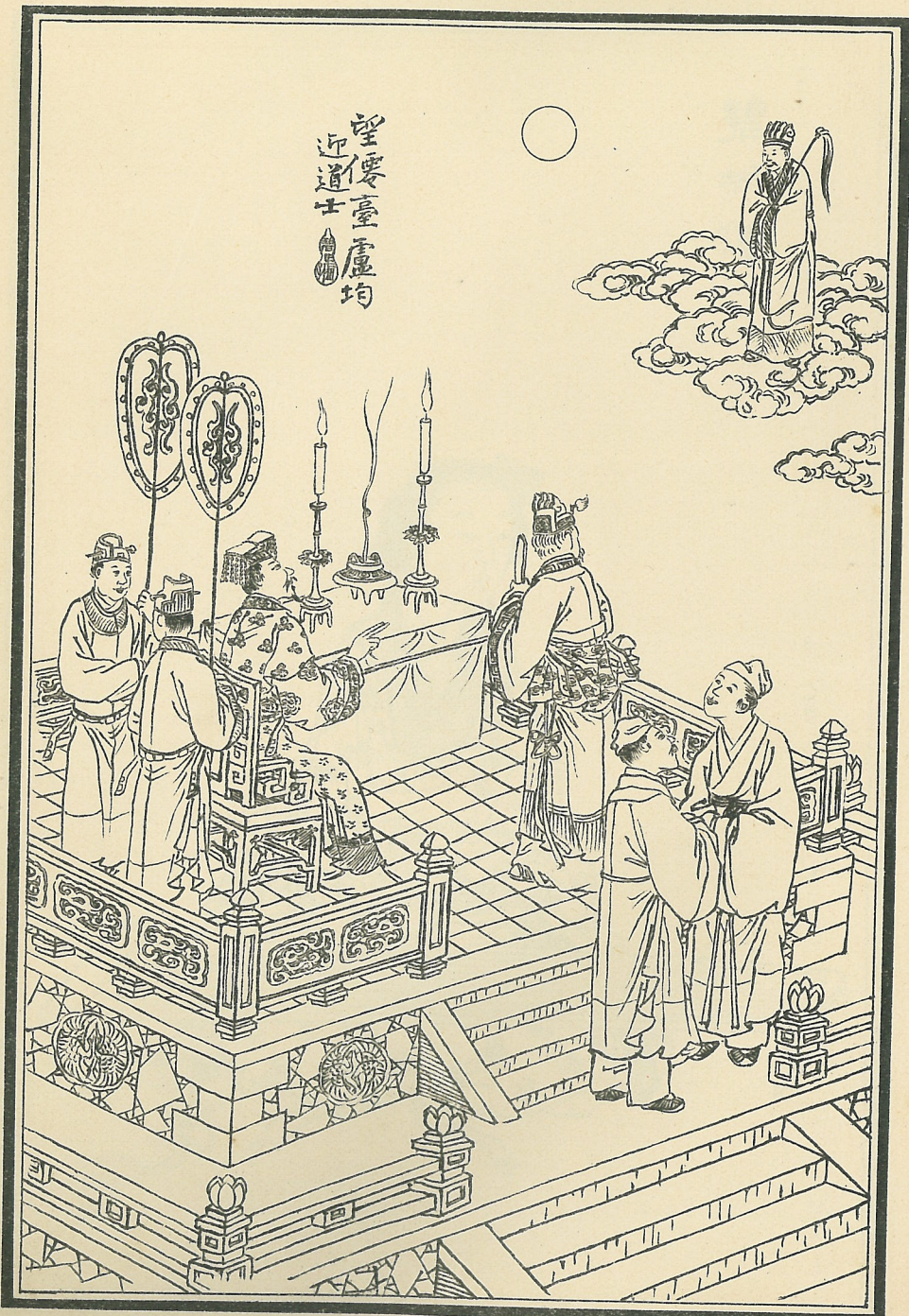
太孃看花賞春院
蓮娘倚瑟唱蠻歌

망선덕 그림

望仙臺圖

벽성선화상

碧城仙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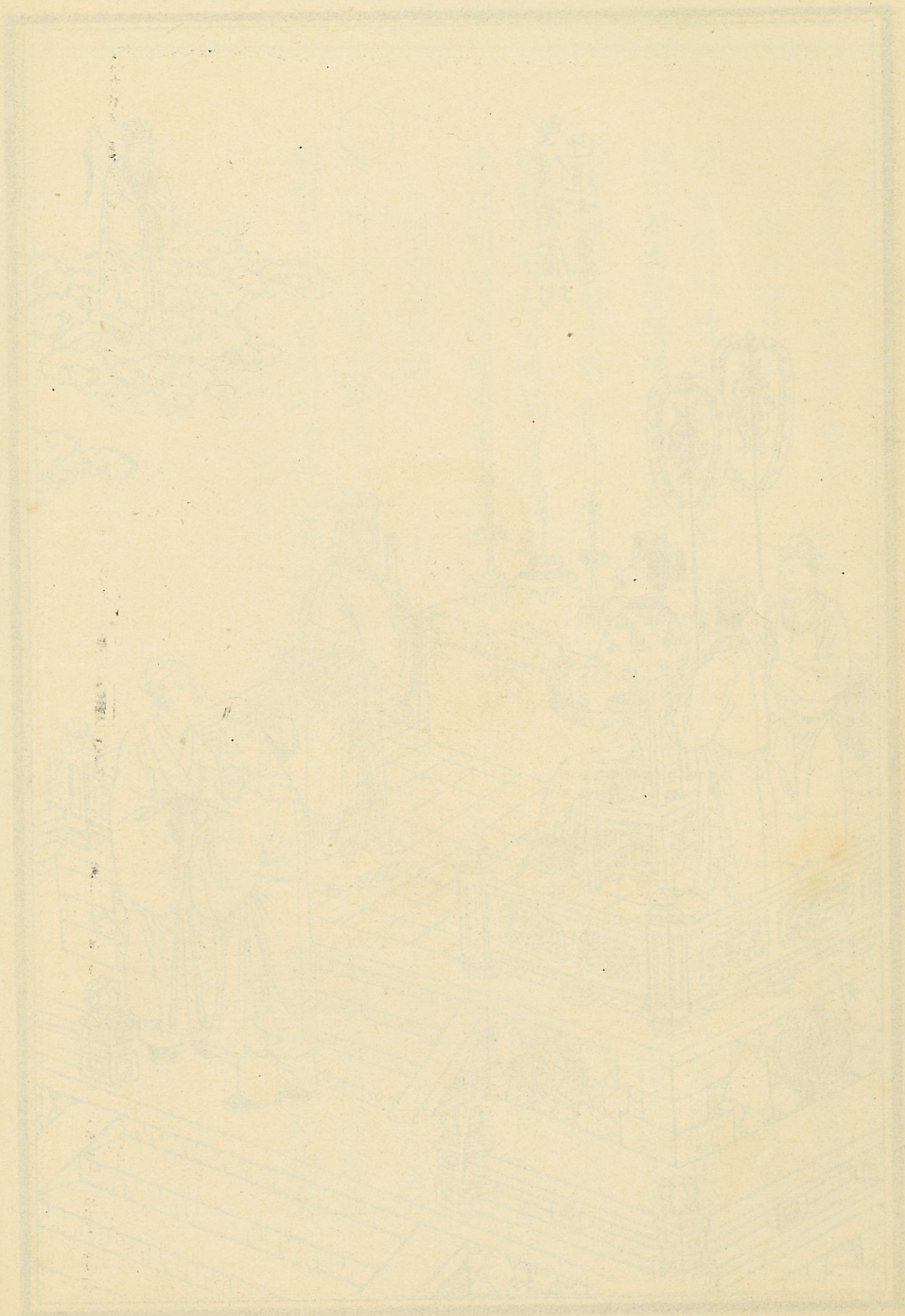
望仙臺虛均
迎道士

망선덕이 로칸도 스를 맛다

碧城僊



선 성 벽





옥루몽권지삼

玉樓夢卷之三

대이십구회

망선덕에로군이 도스를맛고
태청궁에련제왕모를모위다

望仙臺盧均迎道士
太清宮天子會王母

인군을미혹하야 국가를그릇천재부귀공명을엇지장구이누리리오 초시로군이동홍
을청하야 좌우를물니고허희탄식하며동홍의손을잡아왈로취혹스로더브리이긋치
종용상덕할날이오래지못할지니엇지한심치아니리오홍이경왕이엇진말습이니잇
가참정이다시탄왈로취연왕으로더브리세불량립흙은혹스의아는바라이제황상이
연왕을다시쓰신다하니엇지멸족지화를감슈하리오출하리벼슬을일즉브리고고향
에도라가히골을선산에못게하리라동홍이위로왈홍이쥬야근시하야가인부조긋치
슈작하오니엇지련의를모르리잇가합하를향하야제위릉승하시고연왕을아직부르
실뜻이아니계시니합하는변퇴치말으쇼셔로군이쇼왕혹스는쇼년이라세스를열력

지못하얏스니엇지이러한과미를알니오속담에하얏스되늬은물이길을안다하니로
귀입조스군호지스십여년이러한히공과를무수이경력하고길흥화복의득실을친이
보아금일빅발이성성하니엇지전정휴척을싱각지못하리오대범안군이신하를총흙
이비견대남지총척을스랑흙호흙애미양새거슬도화하느니군이본디미천할종척으
로공류들가저인군을섬기니이엇지홍안가인의전총흙과다르리오성상이비록스스
로이권의하샤슈월지간에벼슬이더못회척하나조당이식고고군지비척하야
만히그색를기드리니만일일조에새거시최하야홍안이투척하고가위지리호죽식과
하느총소와비척하느말슴이엇지군을용디하리오로위군으로더브러남미지의를미
척동양휴척과동공일래라군이평안호죽로위평안고군이위리호죽로위리호지
니엇지군을위하야넘러치아니리오동홍이니러지비왕합해홍을스랑하심이에밋
츠시니홍이맛당히결초하야갑스오려니와홍이죽금이후로천만조심하야조당에득
죄치아니호죽성상의일월지명으로엇지이에밋츠리잇고로군이쇼왕군이비록총
직하나또호시세를모르느도다밍회합정에뛰여난죽사들을더욱상하느니연왕은범
못흔재라금일더리됨은군과로부의호바라군이비록만반조심하야조당에득죄치아
니하나그임의연왕씩득죄함을엇지하리오홍이머리를속이고목목량구에왕홍이불
민하야성로를아지못하오니합하느북히그르치쇼셔비록부당도해라도오죽명덕로
하오리이다로군이대회하야츠야에동홍을머드러암실을치우고비밀이슈작하니습

흐다쇼인의모음씩이여래산반석못치든듯호수빅년종사를일조에번복하야호터럭
못치위티케하니엇지인군의숨히고징계할배아니리오이때런지미일로참정동협를
을다리시고밤이면의부당에공류들드르시더니츠일은황상단일이러황래휘방성지
에방성하지고옥슈를방송하신후상씩고왕연왕양공은면정당정하야스과의과흙
이잇는가시부오나분심을말할진대일단지극호총성이라임의절역에찬리하여죽히
속죄할지니금일또호하야부르심이요홀가하느이다상이쇼왕쇼지엇지창곡의총
성을모르리잇고마는그벼슬이과하고출장임상하야쇼년대신으로명망위권이너모
중하기집정호번씩고저흙이오나아죽도비호회비니르지아니하고또호수월지간에
이못치샤흙은불가하오니수이풀어쓰고저하느이다황티휘기거아니하샤왕폐해창
곡을위하심은비록극진하시나엇지성덕의하재됨을싱각지아니시느니잇가하시더
라상이종일하례를받으시고야심후편복으로편면에던좌하섯더니일룬명월이동던
에도다오며경경성한이료량쇼술하야비록쥬동던과가을못흔지라이에로참정동
협를을부르샤의부당에연석을비설하야연하실시종친근사와비빈궁척을참예하
라하시고리원대조로공류들알외며수삼궁녀로우의무를출추라하시니봉관릉성은
운쇼에소사나고취슈홍삼은월하에느부처술이수비에지남애룡안에춘풍이그득하
샤친히보슬을다리며두어곡도를르시니좌위일시에만세를부르거늘상이호연이우
으시고동홍을보시며암히상황을주샤왕군은왕조진의넋곡도로써인간전루를셋게

楊州

楊太眞
沉香亭
李三郎

하라 동홍이 즉시 밧조와 알연이 혼곡도를 알외니 상이 미소왈 초성이 료량이 원하 고 단
속쳐 절하야 고시에 운하되 강덕하 슈원량 휘라 하니 이 날은 양류곡이라 다 만음 되 범상
하야 시속에 갓가오니 다 큰 곡도를 불으라 동홍이 즉시 틀러 변하야 다시 혼소리를 알
외니 상이 칭찬왈이 소리 청화 료량하 고 담탕 완연하야 고시에 운하되 이 모업적 방궁장
이라 하니 이 날은 양류곡이라 지죄 쇼쇼하야 화창치 못하니 다 큰 곡도를 불으라 동홍이
이에 틀러 불나다 시정성을느 초고 신성을 도도와 혼소리를 알원대 상이 이윅히 드르
시다 가이 연이 우으시며 옥슈로 서안을 치사 왈 풍류의 즐거움이 엿지이에 밧조리 오내
모음이 취하 고 정신이 무르녹아 그들 곳을 아지 못하노니 이 날은 옥슈후 덩해아니나 동
홍이 웃고 인하야 중성을 울너 또 일곡을 부니 상이 화열하야 좌우를 보시며 왈 패지 패지
라 초곡이 여양래진을 다리고 침향 덩에 올라 화로의 비파와 념로의 소리로 달탕호방하
니 이논리 삼랑의 풍류과 인하야 리원갈고로 비화를 지축하든 갈고 최화곡이라 후인이
비록 삼랑을 죄주어 방탕함을 취하얏스나 스히 지부와 만승지존으로 엿지일성구속하
야 혼심지 지육과 이목지락을 임의로 못하리 오집이 금야에 비빈궁첩을 다리고 의봉
덩에 올라 동협들의 풍류를 드르니 죽히리 삼랑의 호방함을 양두치아닐지라 쇼년던조
의 풍류과 실을 경등은 용서하라 언필에 궁첩을 명하야 술을 가져오라 하야 련하야 삼스
비를 마시고 옥면취훈이 구중선도의 춘식을 써여 군신상하와 비빈궁첩이 차례로 잔을
밧들어 만세를 부르더니 동홍이 혼연 상황을 들어들을 변하야 일곡을 알외니 기성이 쳐

漢武帝

春臺、壽
三皇
五帝
黃帝、少
昊、顓瑠

帝堯
帝舜
周穆王

喬山
秦皇、驪
山、茂陵

창비량하 고 쇼슬강개하야 습습흔바람이 좌상에 내려나 고 덩덤흔 옥루 효식을 지축하
야 성월이 참담하 고 풍류쳐량하니 일채추연함을 서듯지 못하거늘 상이 급히 손을져어
긋치라 하시고 곡목하들을 향하야 망연조실하시더니 참정을 보시며 왈 경이 그 곡도
를 아느노빅일이서 흐르지고 류슈동으로 흐르니 부귀행락이 일편부운이라 엿지한무
데의 부산되아 나리고 담에 운하되 혼진비리하 고 락극이 성이라 하니 정히 금야 심회
를닐음으로 다 읊흐다 아츠의 록발이 저녁의 빅설이 되니 청춘혼안이 도시꿈이라 스히
지부와 만승지귀를 장차 무엇하리오 경이 고금서적을 널니 보고 전티 흥망을 만히 드렸
슬지니 무슴되잇서던하를 화하야 춘티 슈역에 오르게하랴 유락무의하 고 유성무스하
야런디로더 브러갓치하개하리 오로 균왈 신은 뜻스오니 삼황은 무위하야 향국일만 팔
천계하 고 오데는 제레작악하야 우호로런디 신기를 감동하 고 아래로 샹셔 북록을 밧아
황데는 저위빅년에 슈일빅십세오 쇼호는 저위구십년에 슈일빅스십세오 연옥은 저위
팔십년에 슈구십팔세오 데쇼은 저위오십년에 슈일빅십세오 주목왕은 저위빅년에 슈일빅칠
십세라 신이 고적에 망미하야 히비치 못하오나 이 엿지 춘티 슈역에 유락무의하야런디
와갓치하음이 아니 리잇고 상이 쇼왈 짐은 드르니 교산에 황데총이 잇고 진황한무의영
결함으로 도려산무릉의 추최쇼슬하니 조고이리로 장성지술이 업는가하노라 균왈
진황한무는 정벌을 일삼고 형정을 힘써 평성물욕에 버셔나지 못하얏스니 엿지 장성지

黃帝軒
嗣山、廣
成子

鼎湖、瑤
池、羨門
安期、蓬
萊、方丈

燕、齊
棠、禁城
太清宮

靈廉桂觀

青雲道十

술을 엮으리 잇고 황데헌원씨는치성제정호후공동산에철일지계하고광성즈를맛나
 빅일비승호얏스니교산에궁검을허장함이라이제폐해죽위이티로인심을엇으샤우
 순풍도하고민성이안락하니맛당히공덕을칭송호야런디씩고호시고래산에봉선호
 샤장성지술을구호신즉영호의나는를을가히명에홀거시오요지의팔준마를가히어
 거홀지니선문안기의비승지술과봉리방장의불스지약을엇지안저니르지못호시리
 잇고상이대열호샤로균을즈신연래호스검흙연관지례관을비호시고봉선호는절초
 와구선호는거조를강론호야드리호신대로균이이에고레아는선비와도술농혼방
 스를부르니연제지간오괴황탄호무리구름긋치모드니로균이즈금성년에천여잔집
 을짓고일홍을래청궁이라호야런지친필로데익호시고로균의벼슬을긋쳐래청궁래
 호스를비호시니제도의굉결홀과루관의장려함이하나라바림계관에더호더라모든
 중일기방사로균을티호야왈성상이삼황오데의고레를힝호시고선문안기의종적을
 조치고저호시니이느천고의드른일이라맛당히물의농혼도스를청호야몬져하늘
 썩치레호고슈복을빌미를홀가호는이다로균이대희왈내또호호이뜻이잇스나근일도
 술잇는도식업스니균이후방외에놀아드른배잇거든청케호라망시왈광활호세계에
 었지일기도식업스리오근일남방에신인이잇스니도호는청운도시라도술이정동호
 고지죄놈하스방에운유호는니만일청코저호실진대정성을드려레로부터신즉혹을
 가호는이다로균왈내성지를받즈외국가를위호야슈복과상셔를빌나호며일호티만

巖簞嶺

西域國
觀桑山

함이잇스리오호고이에철일지계하고레폐를후이호야수지방스를보내야떠날시방
 스등이다시고왈청운도시심분신흥함이잇서십방을굽어보고안졌스니합하는일단
 성심으로목욕호고기드리쇼셔로균이허락호니라차설청운이빅운도스를되서총황
 령빅운동에잇더니홍량이하산호후빅운도시서런으로도라갈시청운드려왈네공부
 를일우지못호얏스니로부를쫓지못홀지라아즉쳐쳐에쳐호야도를더닥그라다시날
 너왈네심지경호고조금지죄잇스니로부의근심호는바라부디잡술을밧고민산에출
 각호지말라청운이지비슈명호고스부를비별호후빅운동을직희고잇더니일일은홀
 연성각호되일성종적이사문밧과나지못호고비흔도술을시협홀곳이업스니잠간스
 방에놀아문견을널니리라호고드디여서호로서역국을지나약목을구경호고동으로
 관상산에올나부상을브라보고북으로현상문에올나반목을굽어본후장탄왈런디크
 다호나불과내손바닥긋거늘엇지평성을구속호야겉홀배잇스리오호고북방제국을
 편답호야스스로청운도시라호고혹화복을말호야길홍을점치며도술을시협호야지
 조를즈랑호니북방제국에일홍이진동호더라청운이쇼왈북녀오랑캐더부러말호배
 업도다호고다시중원을브라보고쇼왈이가장런디문명지기를엇엇스니반드서지조
 잇는재만호리라호고그만히몸을변호야일기결인이되야항성에드러와풍속을습히
 며인지를맛날가호얏더니초시맛츠로균이당국호야연왕을내치고쇼인이쇼명에
 득호리라청운이웃고심중에성각호되내일죽드르니런디구주에중원이웃들이라호

더니이곳치요란하여지혜잇는재적으니내맛당히술법을빚내야흔번파적하리라
 고다시몸을변하여흐낫방식되야방스에셔겨래청궁에드러가니로균이바야흐로목
 육지계하고방스와더브러즈기를청할방약의론하니청운이웃고죽시몸을싸혀성
 외에나와바장이며방식도스청하려감을기되리더니과연수일후수기방식거마와페
 벽을가지고남을향하여가늘청운이만히뒤를조차수일을헿하더니일일은수기
 방식의론할우리일죽청운의일흥을드렸스나얼골과거주를모르니장춧엇지차즈리
 오일기방식왕내일죽드름애청운이다만잡술을도화하고십분농흔도술이업다하니
 엇지곳하여청운을구하여무엇하리오맛당히가다가도관을뒤져일기도스를맛나거
 는청운도저라닐것고다려오리라일기방식추언을듯고박장대쇼왕묘지묘지라이계
 교여임의그러홀진대이페벽레물을우리들이난화가즈리라하고서로의기양양하여
 헿하거늘청운이미쇼하고죽시만히변하여다시결인이되야수리뒤에모르게싸라
 으며입으로은근이진언을넘하니츠시수기방식비록수리를빚비모라반일을헿하나
 촌보를더감히업고그곳에섯는지라서로대경하여뒤를도라보니일기결인이흔드리
 를절며싸라오다가쇼왕그디수리모는법을모르노다내맛당히디신물니라하고말
 을채쳐물거늘모든방식수보를싸르더니츠츄려져싸를길이업는지라방식또흔물
 을채쳐아모리조치고져하나그결인이도라보고미미우으며완완이헿하되임의
 수리를떠려져츠츄간곳이업거늘방식대경하여가슴을치며불너왈더결인은수리를

잡으라우리런즈의명을받조와청운도스를헿하라가오니길이밭부도다언필에능뒤
 에셔답왈그디수리여괴잇스니가져가라하거늘방식놀나도라봄애그결인이수리를
 물고뒤에오는지라방식바야흐로범상하사람이아님을알고복디샤래왕선성은반드
 시속인이아니시라놓스온도호를알고져하니다결인이흥연웃고일진청풍이되야
 공중에소스며왈나의는부질업시남방에가지말고도라가기드리라모일모시에청운
 도셔래청궁에니르리라언필에간곳이업스니방식더욱대경하여바야호로청운임을
 서듯고거장을돌녀래청궁에도라와로균을보고중간에셔청운을맛나여츄여츄음을
 교하니로균이대희하여래청궁북편에수층대를모아일흥을망선되라하고그날을당
 흥애향화다탕을정결이준비하고런지래청궁에천림하샤도스를기드리시더니샤
 삼경에런식이청랑하고성월이교결흔디흔줄기푸른기운이남으로조차망선되에섯
 쳤거늘모든방식고왕이는장춧도식강림코져하야공중에드리를일음이라하더니아
 이오일진청풍이향연을블며과연일위도셔치운을드고공중에느라되에느리니푸른
 눈섭에얼골이빚욱고표일흔의상과청슈흔즈질이진짓진세인물과다르더라도관
 도의로과리채를들고빈주지례로런즈씩되오니런지공경답례하시고왕짐은진세에
 처하고선심은물외에오유하니엇지이곳치맛남을과약하앗스리요도셔쇼왕빈도는
 부운축적이라페하의성심으로부르심을감격하야왔스오나페해런하지부와만승지
 귀로청정담박흔도를구하야무엇하시리잇고상이란왕초로인성이부운츠흔부귀를

西王母

太清教主
道君皇帝

靈霄寶殿
赤松子

엇지 족히 말하리오원컨대선정의도술을 빌어 십유삼산에 약을 구하고 옥경청도에 벗
을 차자현원씨 주목왕의 넷일을 호축고저하노라도식 눈을 흘녀던 안을 보고 쇼왈 폐하
는 인간범골이 아니라 상계신선으로 잠간적강심이니 만일 지구흔도를 들것고저하실
진대 빈되 맛당히 턱일설법하고 수삼선관을 청하야 연년의 수홀방략을 전개하리이다
상이 대열하사 도스를 래청궁에 공양하라하시고 환궁하시니 도식로 참정을 디하야 왈
성련지 만년지 계를 구하사 주목왕 서왕모의 고스를 호축고저하시나 상계선인이 진계
에 강림함을 줄거아니하느니라청궁이 협축하야 족히 접디치 못홀지라 맛당히 수빅척
비루치각을 지어 일덤진애부도호후신선이 하강하리이다로군이 그 말을 올히녀다
시루각을 지을 식빅옥란간에 구술지계와 슈정발을 산호갈구리에 걸었으며 교창복도
에 슈취령룡하고 괴화이 초를 비단으로 아로 사여 비록 심동이 나의 연이 삼월 춘풍의 빅
해만 말하듯하더라 청운도식길일을 가리여 도장을 비설홀시던지래청궁에 거동하
니 도식 모든 방스와 존호를 녀상이래청교주도군 황데 되시고 궁중에 삼일지계하
후도장에 나아가시니던지 룡던과에 강사포를 넘으시고 손에 옥홀을 잡으사 데일위에
동향하야 안즈심애 청운도식도관을 쓰고 하의를 남고 파리채를 들고 위에 동향하
야 안지니 여러 방석우의를 남고로 참정동협틀과 수기환시로 좌우에 되섯더라 일황
흔에도식 몸을 니러 북향축던하고 모든 방스와 부복량구에 다시 좌에 나아가던지씩고
왕금야 옥황이 령쇼보던에 잔치하사 선관선군이 모도부연하고 맛참요지왕모와적송

安期生
博山

雙星
飛瓊

조안괴성이 잇서 맛당히 스경삼덤에 강림하야 오경오덤에 파연하고 도라갈지니 박산
로에 강진향을 살아 때를 기드리쇼서 상이로 참정을 보사 루상루하에 큰 향로를 팔방으
로 늦코향을 살오니 몽룡향연이래청궁을 들너 운위자 옥흔듯하더라 이오부뒤중
던에 구을 고경영옥위스경을 보함에 홀연일쌍청되셔 호로 조차편편이느라 운간으로
느러래청궁란간에 안거늘 도식상씩고 왈 서왕되오시느이다언미필에 공중에 선악소
리는 은은하며 량기선내청란을 두고 칠보운환에 상을 남고 징정흔환패소리 록운간에
료량하야 루하에 니러래청란을 머물고 바로 루상에 올라오니던지 몸을 니러 맛고저하
시거늘 선내랑연쇼왈 첩등은 왕모랑량의 시너쌍성비경이라 대명던즈는 옥례를 즈중
하쇼서 량량이 더괴오시느이다던지 멀니브라보시니서 괴령룡하고 처운이 영영흔
중일위녀선이 봉관월패로 오운거를 명에하야 전후좌우에 보선운번이 쌍쌍이 응위하
고 십여기시네 각각청란을 두며 봉황을 두고 공중을 덩허니 르니 관치휘황하고 이향이
축비하더라 도식 여러 방스를 다리고 황망이 루에느러길을 인도하며 루상에 오르니던
지 길에 읍하사 데이위에서 향하야 안즈애 십여기시네 또흔츄례로 시립흔후던지 눈을
들어 왕모를 보시니 단엄흔티도와 선연흔얼골이 싹긋치점었는디 록발은 춘운이 무르
녹고 맑은 눈은 추쉬어 리여 십분아릿답거늘던지 혼연문왈 량량이 일즉 주목왕과 빅운
요를 화답흔지 임의 일천년이라 월티 화용이 오히려 쇠하지 아니하오니 비로소 옥경요
디의즐거움을 알니로쇼이다왕되랑연쇼왈 첩의 집반도 나무아래 팔준마 싹든 풀이오

히려자라지아니할앗거늘인간광음이임의일천년이되다하니엇지한심치아니리오
 런지추연을드르시고심중에덕대경하시더니홀연일기쇼년이스슴을드고일기로
 옹이약광주리를잇설어표연이루에오르거늘서왕되웃고런즈를보아왈더쇼년은첩
 의니웃집으히안괴성이오더로응은래산아래약을키느적송제라금야청하심을인연
 하야옴인가하느이다상이공경례필에데삼위데스위에안즘에서왕되안괴성적송즈
 를보아왈그디명런즈의성의를감동하야왔스니장차무엇을가져구구호정을표하고
 저하느노안괴성이웃고소매로조차붉은실과를내어런즈씩드려왈이실과일홍은화
 죄라호반맛본즉비곱흙이업고가히오백년을살지니인간의희귀호실과될가하느이
 다적송제쇼왈로부는산중늙으니라다만송풍에잠자고송업을먹어일싱무병하고일
 선이강건하니로워나히지금일만오천제라는넘시광주리에잇느이다하고푸른솔
 님을드리거늘왕되쇼왈첩의후원에십여주반도를심엇더니근일요망흔으히동방삭
 이일기를도적하고다만오기는맛는지라가져왔스나이느오히려진품반되아니나세
 간사름이호반먹은죽오천년은살가하노라하고쌍성을명하야가져오라하니쌍성이
 마되반에오기반도를밧들어런즈씩드리니런지밧으샤압히노으시고흙신문왈즈고
 이리로선술을도화하야능히장성불스호재멧치나되니잇고셔왕되쇼왈선가의품쉬
 삼총이니상선은구하야할배아니오중선은혹선분이잇슨죽되고하선은비화되느이
 다런지우문왈한무데진시황은평성을구선하나엇지일우지못하니잇가셔왕되당황

東方朔

呂政

劉徹

汾水

하야안괴성을보며왈진황한무는엇더호사름이노안괴성황진황은려정이오한무는
 류철이니이다왕되미쇼왈이느다범골이라엇지죽히선도를말하리오연제오괴지스
 를모도고금동선인의승로반을문드러선선을바라다가분슈츠평에왕스를츠회하느니
 류철은오히려영결하다하러니와무죄호동남동녀오백인을허중에표몰하고려산에
 뫼를닐워민력을허비하고만년계를싱각하니만고의미런호자는진황려정인가하노
 라런지의아하샤왈짐이일죽드르니왕되한무데를조츠샤승화연에강림하샤반도철
 기를드리섯다하니과연그러하시니잇가왕되대노왈이느다방스의속임이라만일진
 실노반도를엇엇슬진대엇지무릉츠평이잇스리오런지쇼왈그러홀진대짐곳흔자도
 선술을엇으리잇가왕되흙신티왈폐하는전제인물이아니라상계선관으로인간에적
 강하시니라일옥경청도의상선이되오시리이다런지흔연이우으시고좌우를명하샤
 차를드리라하시니모다먹지아니하고시녀를보아왈풍류를알외라하니모든시네일
 시에운환저슬과즈운지쇼와즈진지성을알외며예상지곡과우의지부를출추니취슈
 는선연하야청풍이니러나고스죽은딜탕하야벽공에료량하니런지표연이우화하시
 는듯즐거움을이괴지못하시더니아이오셔괴등등하고오경삼덤을보호대셔왕되적
 송안괴를보며도라감을지축하느니런지저삼만류하시나엇지드르리오표연이하루하
 며일진청풍이취운을거두쳐간곳이업고다만공중에선악이들니며만세를부르더라
 런지공중을향하야샤례하고망연즈실하시고초일붓혀선술을더욱밧으샤정스를듯

지야니하시고미일래청궁에거동하사방스를다리고선술을강론하실시청운도스
 를비하야런조스부래청궁진인직첩을주시고삼공륙경이하로비례를안져박게하니
 츠시죠영이히이하야유식자는은근이탄식하야연왕을싱각하고무식자는망풍이후
 하야더마다신선됨을비라더니조연민심이효효하고국용이부족하야벼슬을팔고부
 세를더하나래청궁일용지비를니을일이업더니로군이그만히싱각하되내득실을조
 심하고위권을담하야이거조를창출하러진비록밋으시나민심이불복하니시비와
 원망이장차니러날지라엇지면도호리오하고다시호방략을싱각하야래청진인을보
 고알던하의효유하기에려운자는빅성이라이제황상이놈흔도를듯고저하사선심을
 청하시니무지흔무리선성의법술을모르고모다밋지아니하야서로말하되우리런저
 허황흔도스를밋으신다하니이느국의근심이오선가의슈치라브라건대선성은도
 술을빛내여인잔화복을판단하고길흉을점쳐그의심하는자로입을봉하고심열성복
 하야존경지심이유연이싱기게흠이엇더하뇨진인이쇼왈그장어렵지아니하니빈되
 맛당히런문디리의약복셔를쇼쇼이판단하야런하빅성으로하야금피홍취길하고
 전화위복하게하리이다로군이대열하야즉시조금성성의성비에방을써붓치니그방
 문에무엇이라하고하회를보라

데삼십회

태산에올나던저봉선하고
 횡궁에드러가선랑이탄금하다

登泰山天子封禪
 入行宮仙娘彈琴

각설로군이조금성성의성비에방을써방방곡곡이붓쳤스니그방문에알

하늘이국가를도으시고四海蒼生 爲 太清真人 人間 降臨하청성을위하사래청진인을인간에강림하시니너의빅

성은슈복을구하고직익을피하야길흉화복을판단코저하는재잇거든래청궁에나
 아가진인을치성공양하라

츠시성의성비의방문을보는사름이다의심하야오는재업거늘로군이몬져조과쳐첩
 을보내야조식과복록을비니조영빅관이그뒤를나어쳐첩가인을츠레로래청궁에나
 아가페빅을후이하야기도발원하니히연흔소문과더러온말이랑자하더라츠시소유
 경은찬리지적을넘어남히로적거하고윤승상은샹직하야흔술을거느리고향원에도
 라가니조영에버려잇는재무비로군의문인이라상장군회런풍이흔술을락하야또흔
 스직하고물너가고저하나런저허락지아니하시더니런풍이이거동을보고안던탄왈
 유유창던아우리명나라를돕지아니심이라출신은물너가고잔신은만조하니내칠십
 지년에던은을망극히납어이제나라이망흠을엇지안져보리오하고도채를메고조반
 에올나던조씩죄음고복디동곡왈우리래조황데런하를창업하샤수빅년을누리다가
 잔신슈중에드러망하게되얏거늘폐해망연이서뜻지못하시니신이원컨대아도채로

燉煌

씨요탄흔도스와간악흔신하의머리를버혀던하빅성을샤레코저하는이다상이대노
 왈요마무뵈이긋치무레하니맛당히군를을쓰리라흔신대초시로군이던상에되셨다
 가노즐왈로장이연왕을위함이나국가를위함이나엇지방조무괴함이더긋흔다런풍
 이대노상이셔리긋흔덜을거스리고노안을부름써왈로군이네은총을담고현인을
 모해상이요탄흔경륜과궁홍흔게교로조당을그릇쳐종새얻어지고나라이망흔죽네
 장웃어디로가라하는다로군이면여도석고어석상이상씩주왈되런풍은연왕의심
 부이라다만연왕을알고군부를물나그무레함이이긋스오니그저두지못할지라샤관
 원찬흔이를할가하는이다상이의윤상이죽시되런풍을북방돈황사에출군이라하시
 니되런풍이눈물을뿌리며던조씩하직왈로신이불충하고간신을죽이지못하고군부
 를외로이잔신수중에너허안위를모르고원형오니타일디하에가선왕을죄을낮이
 업슬가하는이다상이더욱진노상이샤발비함을저축하시니런풍이즉시하지하고창연
 이남던을향하야탄왈쇼장은로의라간신의머리를버혀연왕의환국흔을보지못하고
 북방고흔이될지니엇지흔이아니리오하고필마단기로돈황을향하야가니라차설로
 군이되런풍을방축흔후로권제외괴염이더욱등등하야조당을기우리나오직민심이
 불복흔을근심하야태청진인을달니여왈근일우미흔빅성이선성의도술을훼방하야
 은근이시비흔을마지아니한다하니선성은신통흔술업을내야그비방하는자를겸제
 하쇼셔진인이쇼왈이장지이흔도다하고즉시진언을넘하야풀납석을뜻어공중을

明堂 泰山

魯國 闕里

향하야무수이더짐에났낮이화하야무수흔귀줄이성너성외에흔혀저가가호호이조
 덩을시비하는재잇슨죽일일이잡아오니모다크게두려하야입을봉하고다시말하는
 재업더라로군이대희하야이에문각가인을스방으로노아기이흔상셔와이상흔물건
 을구하야드리니조스슈령이엇지괴미를모르리오다도와상셔를말하야혹왈북황이
 느린다하며혹왈괴린이성긴다하며혹왈황하쉬몹엇다하야표문이비발치듯느니
 로군이빅관을거느려진하하고표를을녀청왈하늘이상셔를느리오사성덕을포장하
 시나페하의보답하는노도리맛당히명산에봉선하샤옥을못어던디신기를제하시고
 인하야명당에지계하신후희상에순형하샤다시선언을마져슈복을구하심이가할가
 하는이다상이대희하샤길일을택하야태산에봉선하실적종실대신과문무빅관을머
 브러감국하라하시고로군동홍과환시심여인과문무관빅여원과던전갑스일천명과
 우림군이일만과로태청진인파여러방스를거느려말형할시거괴치중이빅여리에락여
 하고니르논곳마다본군병마를또흔도발하야맛게하니초시는춘삼월이라빅성이장
 기를더지고던묘를머여길을다그며계견을잡아군스를접디하고우마를달취하야거
 장을슈운하니조연민심이효호하야원망이나라더라로국을지낼셔던지천히래되
 로공조스당에비레하시고궐리를지낼셔현종지성이업슴을차단하시며로군을보샤
 왈짐은드르니성인은빅제의스승이라만일정녕이게시샤오날짐의형석을보신죽엇
 더다하시리오로군왈봉선은넷성왕이형흔배라황데요순이또흔이길이잇슬지니성

左个青陽

인이곡삭존양함도오히려스랑항섯거든금일몽선호심을엇지거아니시리잇고상
 이미쇼항사더라래산에오르샤단을모아하늘씨제호시고옥을샤여공덕을칭송하야
 단하에뜻은후되히는려오실시중봉에니르러근신이도라봄에단상에빅운이니러나
 고공중에셔만제부르는소리완연하더라명당에던좌하샤좌개청양을열으시고로군
 이제신을거느려잔을받들어지비헌슈후츠야명당에셔중으실시시야장반에홀연
 혼줄기괴운이명당정실뒤에서니러나하늘에다으니래청진인이주왈이닐은야명괴
 라그아래반드시던셔를엇을지니밤비파보쇼셔로군이좌우를명하야파니과연일기
 석함이잇고석함우에글즈를샤엿스되용장봉전이힐골오야하야알길업더라석함을
 열매단셔일권이그속에드렛스나또호글저괴괴하야속인의알배아니니는선연과
 두문저라히박흔선비를뢰인즉알가하나이다로군이이에단셔를받들어이윽히보더
 니주왈신이비록다보지못하얏스오나그중에성슈무강내적완연하어이다하더라의
 일동으로슈항하샤동히가에니르러일월출을보시고방스를보샤왈히중에삼신산이
 잇다하니즈고로홍흔재잇는나진인이티왈이길로수만여리를지나섬라국날남국부
 상국모든나라를건너대히중에큰산이잇스니일은봉리산이오이는방장산이오삼은
 영주산이니이닐은삼신산이라진한이후로홍흔재업스오나폐해이제구경코져하실
 진디빈되맛당히길을인도하리이다하고밤을기드려상을되시고히변에니르니츠시
 는그믐날이라들이업고히촌이흔흔히디중성이되락하야낮낮이광치를드리워슈중

東海 三神國 暹羅國 刺藤國 扶桑國 蓬萊山 瀛洲山

大洋

에쇼요하거늘진인이쇼왈빈되몬져들을불너희상에빛최게호후호교를노아삼신산
 을굽어보시게하리이다소매를흔변설치며진언을념함애과연일류명월이운간에소
 사히던만리에터력을헤일너라진인이다시소매를떨치며진언을념함애흔줄기무지
 기반공에일위오쳐령롱하거늘상씨고왈홍괴임의일월스오니드리를뵈아공중에오
 르쇼셔상이송연하야즈져하진대진인이웃고다시소매를떨치며진언을념하니홍운
 이니러나던조와진언을받들어임의홍교에올나반공에소손지라진인이손을들어동
 편을그르쳐왈폐해더괴를보시니잇가상이정신을거두샤찬찬이브라보심애망망대
 양에운위는은흔중세봉푸른산이솟발곳치버렸는디루각이령롱하고셔괴어리여괴
 화이초와란도봉황이쌍쌍왕리하고선녀선관이우의예상으로홀왕홀리하야지척에
 림함곳거늘상이진언을보샤왈불가의던상극락을말하더니이를닐음이아니나진인
 이쇼왈이논하계선경이라옥경청도에상선잇는곳을보신즉엇지에비홀바리오상
 이망연량구에알집이이제잠잔더곳에가경개를구경하고적송안괴를다시맛나고져
 하노라진인이쇼왈이제비록브라보심애지척곳하나여괴서팔만리오홍흔바람과악
 혼물결이논재라도홍섭지못하느니만일도를다가진근이청정하교환골달티흔즉
 즈연구경하시리이다연필에진인이다시손을들어셔북잔을그르쳐왈폐해더괴를보
 시느니잇가상이멀니브라보심애또흔망망대헤손바닥곳흔흔섭이잇스되티셀과
 연괴자옥하야흔흔몽몽하거늘상이웃고문왈더괴는어느곳이뇨진인왈이논중국이

라 폐하의 계신 곳이로 소이다상이 머리를 숙이고 난연하시거늘 진인이 다시 소매를 펼치더니 임의 홍교에 느러히 변에 니르신지라상이 더욱 선술을 밋으샤 허상에 두류하시며 곳곳 선선을 보라하시니 숨흐다 일월지명파던디지광으로 엇지일기요란 혼도스에 게미혹 혼배되시리오마는 이또한 국가의 운쉬오일란 일치홀기회라 엇지하시리오차설치시던지 허상에 허궁을 지으샤 장차 선선을 모으고 인왕야 주목왕진시황의 팔방을 주류하고 바다를 드리노느러하시든 뜻이 계시더니 일일은 허궁에 오르샤 옥대를 피시고 군단광악을 드르시다가 우연이 실족하야 공중에 떠러지니 일기쇼년이 밧들어 구하시거늘 도라봄에 그쇼년이 분면홍장으로 녀자의 과상이 잇서 슈중에 악기를 들고 령인의 모양이라 사람을 서치샤 상서롭지아니하시야로 군드러몽조를 말하신대로 군왕넷적에 진목공이 군단악을 씬부고나라를 중흥하얏스오니 이엇지 괴몽이아니오며 폐해동흥을 잇으샤례악을 닦가성덕을 찬양함애 몽종의 퇴신바쇼년이 흑동흥을 응흥인 가하는 이다던지 또 혼흥을 뜻하시더니 초언을 드르시고 홍의 벼슬을 더하시야의 봉등태후스겸 군단가혈들도 위를하시시고 리원대자를 곳쳐 군단대자라하고 민간 의음을 아논미쇼년을 썩아드러 군단대자를 삼아 좌우에 피셔 몽조를 응흥케하시니 초시동흥이 성지를 밧자와 군단제를 썩을척창졸에 충수할길 이업는지라 홍이 이에 좌우지인을 원근에 노아만일 합흔재잇거든 못지 말고 잡아오라하시니 려항쇼년이 년쇼미무흔자는 감히 현형치못하시더라차설치시선랑이 덤화관에 잇서 서어 혼기적 이 일일 삼취라 날마다 북편을 첨망

秦穆公

忠州 山城

하시며 연왕이다시 차음을 고디하시니 뜻밧기던애 적기이되야 음신이 묘연하시신세를 생각하시니 갈수록 괴이함애 식음을 전폐하고 주야호흡하시더니 홀연 단왕우리상공이 쇼인의 초언을 님으샤 졸연 환초하시실기망이 업고도 관에 처하시야 종적이 얼을 흘썩아니라 무슴풍패다시아니실길 줄알니 오출하리 종적을 금초아 남방산천을 구경하고 운남적소에 갖가온도관을 차저 때를 기드림이을도다하시고 이에 일필청려와 남북을 기찰하고 모든 도스를 작별 혼후남으로 허홀시로 주량인이 일기서성과 일기서동의 모양이라여러날만에 충주사에 니르니 황성이 구벽리오 산동성이 벽여라 일일은 덤중에 들매수키쇼년이 선랑의 용모를 보고 눈주어 숙시하시며 문왈그디논어디로 가는 사람이뇨 선랑왈나는 산슈를 차저 명처입시다니노라 그쇼년이 서로 보며 미쇼왕그디의 얼골을 봄애 풍류남자의 과상이 잇스니 흑음을 비홍이 잇는나 우리도역시 방랑이든 이는 사름이라 맛춤소매속에 단 쇠잇서 금야기중에서로 쇼견코저하시노라 선랑이 초언을 듯고 생각하시되 더쇼년이 반드시내모양이 녀자긋음을 의심하시야 이긋치힐난함이니 내졸흔티도를로 출흥이불가하시다고고쇼왕나는 썩은 선비라 엇지 음를 알니오마는 량위선성이 이이긋치놀고저하시실진대 초동목덕의 호빈함을 스양치아니리이다 그쇼년이 대희하시야 소매속으로 초차홍쇼를 내야몬져 일곡을 불고 선랑을 주거늘 선랑이 스양치아니하시고 수곡으로 처치이화답호홍쇼를 도로 전하시야 왕내본디 숙공이 업고다만 량위선성의 후의를 팔시치 못함이니 선성은 웃지말으쇼셔 그쇼년이 마장 깃버 밧그로나가더니

아이오밤기요란하며오륙기한재쇼거를문밖과다이고그쇼년이크게소리왕우리는
 황명을받조와그디곳혼자를구하란이노라하며벗들어수리속에너코풍우곳치모
 라이더로가거늘선랑이또불의지변을당하야곡절을모르고거중에안져쇼형을보아
 알이논우리노주의명이로다평디풍패이곳치난축하쇼쇼청왕랑조는관심하야초초
 스키를보쇼셔선랑이또호호일업서다만호번죽기로조쳐하쇼안젓더니종일하야
 호곳에니르러수리를놓코느림을청하거늘선랑노췌래연이느려좌우를보니데릭이
 굉걸호티무수호쇼년이조괴의모양으로둔취하야안져면면상고하거늘선랑이또호
 여러쇼년을조차안즘애일기관인이척반을가지고나와권하며위로왕그디는근심치
 말고척반을먹으라이곳은산동성이오우리는로참정로야의가인이라던지방금희상
 흥궁에게시샤재로군련데즈를썬의실시명일은동협를과로참정이그디등을취지호
 다하니그디들은저조를다하야던조씩근시호죽엇지영화롭지아니리오선랑이초언
 을듯고심중에성각하되이논반드시동홍로군의소위로다내만일본식을조레로출호
 족로군은우리상공의수인이라엇지욕됨을면하리오맛당히종적을숨기고취지하는
 자리에나아가저조를은취하고풍류를모르노라호죽조연노화보내리라하고교표를
 덩호후동정을기드러더니과연그관인이다시수십척수리를가져쇼년을다리고어디
 로가거늘선랑이거중에서보라봄애총총호성혈이히변을림하얏스니못지아녀흥궁
 을알너라차설초시동홍이로참정을보고왕홍이이제황명을받조와스면에광구하야

음를아는쇼년십여인을잡아왔스니금야황상을피셔그저조를구경할가하는이다로
 군이침음량구에손을저어왕불가하다계상에불촉할바는사름이라그디권도로소미
 평성의낮모르는쇼년을모화던조씩드리고져하니엇지우리의복이리오만일우리
 량인의심복이아니여든종금이후로근시케말라동홍이샤레왕합하의말숨이복이심
 은홍의밋칠배아니로소이다로군왕슈연이나군련데즈를썬음은군의지척이라금야
 스실에취지하야그중사름을보아우리심복을문든후던조를피시게하리라하고죽시
 모든쇼년을조괴쳐소로인도하라하니선랑이쇼년을싸라로참정쳐소에너르러봄애
 수십간집을새로지어극히정치호중첩아마다구슬등을별조치달앗고산호갈구리에
 슈정발을곳곳이걸엇스니진짓선루각일너라좌우를봄애일위저상이조비옥디로
 푸른얼골에살의를피여동향하야안젓스니이논이에로군이오일기쇼년이호포야디
 로용피아름답고서향하야안젓스니이논이에동홍이라전후좌우에악괴를버려놓코
 제쇼년을조레로딩좌호후로군이미쇼왕그디는다엇디호사름임을모르나동시황상
 신지라방금황상이상셔를엇으시고례악을중슈하샤래산에봉선하시니이논천고의
 희귀호일이라이제리원교방의속악을곳쳐군련데즈의선악을일우고져하노니그디
 등은각각저조를숨기지말아성덕을찬양하라선랑왕쇼형은일기서성이라음들의공
 휘업스오니마르치시논뜻을봉승치못할가하는이다로군이미쇼왕쇼년은너모스
 양치말라이또호스군하논일이라왕문령인의슈치될개업슬가하노라말을못고각각

풍류를주어 소장되로서험홀쳐서서런저항궁에게시샤수삼근시를다리고월하에
 건이시더니홀연풍편에스죽소리의의이들니거늘좌우드러무르시니좌위왈로참정
 동협물이새로군던데즈를뺏아스습하니다상이혼연쇼왈짐이이제미형으로가구
 경코저하니좌중에약속하니루설치말라하시니라츠시제쇼년이츠레로풍류를알
 의여관현이방장덜랑하니홀연일위귀인이장중으로수기시자를다리고니르거늘
 선랑이우러러봄애괴상이출중고풍취동당니야름준일각에롱장봉피라광치회황
 니야다시보니심상홀귀인이아니라웃고로참정을보시며왈쥬인이가각이잇서금야
 독락함을듯고불청각이저리니앗스니혹패홍됨이업슬쇼나언필에옥음이또호를려
 에합하니당녕던저림신가의심고되복석과시위중험할배업더니그귀인이쇼왈동
 후스는쥬인이라몬져일곡을듯고저하니라동홍이즉시몸을니러비파를잡어수곡을
 두거늘선랑이저세드름애슈법이황잡고음률이차란중중그소리심분불길니야제
 비막상에깃드리고고기당중에뛰노듯하니선랑이심중에의아하시니그귀인이다
 시쇼왈후스의비파는너모지리니야성신치못하니리삼랑의갈고를썰니가져오라내
 맛당히홍중진루들흔번써스리라하시고옥슈를들어흔번채를울내비록슈단이성
 소고곡되소루하시나광대흔도량은던디가이업고호방흔과세는풍위번복니야비컨
 대창히신룡이변화불촉니야운쇼에오르고저하니구름을엇지못함니거늘선랑이바
 야호로대경니야그귀인이이에던즈심을아나임의미형신기미를보고감히괴석을

李三郎

로출치못하시야다만심중에성각하시내비록조감이업스나풍류와음성을잠간드른죽
 그사름의괴상과슈복을쇼연이알지라우리황상의광대하시덕량과신성문무하시즈
 품이더긋하시거늘쇼인의무리던총을그리와일편부운을헛칠일이업스니내비록일
 기너지나또호츨의지심을품은지라이러흔괴회를당하시엇지풍류로흔번풍간치아
 니리오하시고계교를당흔후동정을기드리더니던지갈고를긋치시고쇼년을취하시야
 선랑에게너름애선랑이스양치아니하시고죽덕을잡어알연이일곡을알윈대던즈미쇼
 하시며동협물을보샤왈이느심상흔슈단이아니로다봉황이쇼양에올때몹은소리운
 쇼에스못치니듯는자로하시여곰취몽을써여인간벽도의범상흔소리를써슬지니이엇
 지닐은바봉명곡이아니나하시거늘선랑이바야호로던즈의총명이출중니샤죽히풍
 간홀출짐작하시고이에죽덕을듯코거문고를다리며옥슈로줄을골나일곡을듯대던지
 혼연쇼왈한가하시도다츠곡이여류슈묘연하시고락해표당니야유유흔금과망망흔성
 각이췌잔시비를니젧스니이느닐은바락화류슈곡이라슈법의단야홀과음도의담탕
 흠이근일처음듯는바로다선랑이즉시를려를변하시야다시일곡을듯니그소리감개겨
 렬하시야우량초창하시거늘던지겨절차탄하시야왈유심지라츠곡이여벽설이분분하시던
 디에그득하시니양춘세계를어느때에맞나리오이느영문각의벽설되라창고흔곡도를
 화답할재적이지라엇지불우지단이업스리오선랑이다시를려를변하시야정성을늦초
 고신성을도도아일곡을알윈대던지일희일비하시야옥슈로셔안을치시며왈諭하시다츠

鄴門客

汴水 隋煬帝

漢太祖

沛上

茂陵

李長吉

漢武帝

公孫弘

張湯

承華

곡이여 변슈의 버들이 푸르고 궁중의 비단 남기이우니 풍류던조의 편시향락이 일장춘
 몽이라 이닐은 슈양데의 데류곡이아니나 변화혼중의원하고 청신흔중소쇄하니 무단
 이사록으로 하야곰 처창불락 혼심스를 돕는도다 선랑이이에거문고를 밀치고 보슬을
 다리여이십오현을 줄줄이 골나 쇼현을 누르고 대현을 울려다시 일곡을 알외니던지 혼
 연추연기용하야왈이곡되엇지그리장너비창하노대 풍이닐매구름이늘니이코위염
 이스히에더함애고향에도라오니이닐은한래조의대풍개라영웅던조의적슈창업이
 천고의뜻을엇엇거늘엇지그중에 처량혼의식잇는요선랑이디왈한래조고황데본디
 패상덩장으로삼척검을잇글고팔년풍진에위티함을무릅서던하를엇으시니그신고
 로록함이엇더하리잇고후제조손이이뜻을알재업서종묘사직의부락을저브릴가하
 야딩스를싱각하야스방을넘려하고이곡도를지으시니엇지처창함이업스리잇가던
 지목무부답하사거늘선랑이다시줄을떨쳐대쇼현을거두고중성을울려또일곡을알
 외니그소리령령덩덩하야승로반에이슬이떠러지고무릉츄풍에석권비쇼쇼하니던
 지선랑을자로보시며문왈이느무슴곡도요선랑이디왈이느당나라리장길의지은바
 금동선인스흔기라한무대의웅지대략으로죽위지초에정스를힘써현랑지스와직언
 지신을쓰고저하시더니공손홍장탕비의던총을아당하야상서를말삼하고봉선을칭
 송하니승화청도의계술을신령하고후성덕석의황탄함을밋어못침리나라를병드림
 애후인이이노래를지어무대의성덕을차석하니이다던지또목무히부답하사거늘선

徐子

楚莊王 蘇種

랑이즉시털발을들어치성과각성으로삼삼히또일곡을알원대그소리처음은방당하
 고나종은이원하야용용흔빅운은던변에니러나고슬슬하바람은죽총을올니거늘던
 지척연기용왈이느무슴곡도이뇨선랑이디왈이느죽목왕의황죽개라넛적의죽나라
 목왕이팔준마를엇어요지에서왕모를맛나도라움을니즘에시종제신이곡을싱각
 하고목왕을원망하야이노래를지엇더니맛츠서조의작관함을인하야나라이거의위
 티할번하니이다슈연이나또일곡이잇스니마져알알가하느이다하고주현을다시골
 나일곡을두니초장은호탕하야털기를달니느듯중장은광대하야바다이널넛는듯변
 해무궁하고되롱난축하야일좌를경동하더니선랑이혼연털발을바로잡고옥슈를씩
 르쳐이십오현을밧년일이혼번그어일시에다닫호니좌위대경실석하고던지선연변석
 하사선랑을슈시량구에문왈이곡도일함은무엇이뇨선랑이디왈이느닐은바총던곡
 이라넛적의초장왕이즉위삼년에정스를듯지아니하고풍류를일삼음에대부소종이
 간왈궁중에혼재잇스되삼년을울지아니하고삼년을늘지아니하니무슴재나잇고
 초왕왈삼년불명이니명장경인하고삼년불비하나비장총던이라하고좌슈로소종의
 소매를잡고우슈로종고지현을윈어다시덕을닥금애불과수년에초국이대치하야오
 패의웃음이되니이다던지목무어하시니치시로군이선랑의풍간함을알고심중에
 불쾌하야말로씩고저하야좌에나안즈며왈내그디의음을들을드렸스나다시그의론을
 듯고저하노라그디는씨하되풍류어느때로붓혀났다하느뇨선랑이쇼왈성이고루과

문하야무엇을알니오일즉스승씨드르니풍뤼던디와又치났다하더이다로균이쇼왈
 연즉그처음난풍뤼일홈이무엇이노선랑알공이다만풍뤼일홈있는풍류만풍류로알
 고일홈업는풍류를모르며소리있는풍류를풍류로알고소리업는풍류는모르시는도
 다효데총신은소리업는풍뤼오희로이락은일홈업는풍뤼라사람이희로이락의과홈
 이업슨즉그상이화평하고효데총신의형실을다근즉모음이즐거울지니모음이즐겁
 고그상이화평한즉비록만히안젧스며고요이처하야도무성대악이내귀에잇슬지
 니엇지일홈으로써풍류들의론하리오로균이링쇼왈그디의말이오활하도다던디운
 수와사람의총명이고금이다르니엇지풍류음들이고금이又호리오선랑왈불연하다
 사람이고금은잇슬지언던디엇지고금이다르며총명이고금은잇슬지언딩음들이
 엇지고금이다르리오색성은청월하고금성은강장하며죽성은정일하고스성은료량
 하야불면응하고치면소리남은고금이일반이라또드르니함지운문은황제의풍뤼오
 대장쇼쇼는요순의풍뤼오하지쇼호와죽지상무는이닐은고악이며상잔복상은정위
 의음악이오그모검극은만의의음악이오한지방중과당지리원은이닐은금악이라가
 령요순으로금계에부그하샤덕화를행하시고풍류를일우신즉한지방중을가히변하
 야대장이될거시오당지리원을가히변하야쇼되될지니엇지강구의도양으로데력을
 노래하며포판의들이특별이빅슈를춤추게하리오로균이어석홈애다시시무들의론
 하야축취홈을보라하고이에기용정석하고왈넷성인이풍류를지어사람을그르침은

장차그덕을형상하야던디에고하고후세에류전코저홈이라방금성던저우히림하샤
 요순지덕과문무지화만방에밋츠샤하늘이상셔늘리시고빅성이슈복을늘여당우
 삼덕에붓그릴배업슬지라로뷔이제황명을받츠와대명신악을지어성덕을칭송하고
 교화를형상하야요지대장과순지쇼쇼들의방코저하노니그디는써하되엇더타하노
 노선랑의디답이무엇이라하노하회를보라

데삼십일회

로괴광녕성에길이모라오고
 호변이산화암에크게들네다

虜騎長驅廣寧城
 胡兵大開散花庵

각설선랑이의외던저를피셔신성문무하신성덕을우러러봄애로균동홍의던총을그
 리음이더욱동흔하야총분지심이유연이싱기니수곡지금으로비록풍간홈이잇스나
 오히려분을흔회포를금치못하야하더니로균의말을듯고이에아미를쓰고옷깃을넘
 의여왈선지라공의위국진총홈이여선술을말슴하야성주의제우를요구하니이노공
 의지혜과인홈이오현신을방축하야당론을세우고언관을죄주어위권을천단하니이
 노공의슈단이출총홈이오봉션을청하야국용을탕갈하고민심을소동하야원망이니
 러나나조곰도요동치아니하니이노공의담략이되확홈이오런하사람이그른디드러
 감애스스르모르는지만겨늘이제공은알고범하니이노그복음이절인홈이라이제다

시공류들지어군던데즈를썩으되고문대죽의처첩을싸쳐오며형인파괴의종적을겁
박하야소문이랑자고거죄히연하야빅성이로변에서의원고군즈는실중에셔탄
식하야알우리성던지총명하심으로엇지이러하신고하야우흐로황태후의심려를돕
고종묘사직의위리함을세치나공의부귀공명은날로더하야감히우러볼재업스니
이또호묘리잇는경륜이라엇지죽히싱드러무를배잇스리오물이근원이업슨죽연어
지고나위씩리업슨죽죽느니라라빅성의근원이오인군은신하의씩리라공이이제
다만목전부귀를알고인군과나라를모르니근원업는물과씩리업는남기몇철을지렁
하리오언필에도화랑협에찬괴운이돌고춘운쌍빈에강개호빛이잇거늘로군이괴운
이막혀다시일언을부담고고괴를속이고안젧스니던지크게경동하샤선랑의죽적
을알고저하샤왕군신일석에엇지형지를은회하리오집은이에대명던지라너는엇더
할사람이노선랑이황망이게하에느러복디주왕신첩이던위를모르고당돌함이만스
오니그죽을바를아지못하느이다던지더욱놀나문왕네임의남지아니오녀즈호출진
대엇더호집부네노선랑이돈슈왕신첩은이에운남죄인양창곡의천첩벽성선이로소
이다던지당황랑구에다시문왕네향일가중풍과를맛나강주로축송하든벽성선이아
니나선랑이황공왕그러하느이다던지죽사몸을니라당에느리시며선랑을보시고왕
짐을싸르라하신대선랑이쇼청과던즈를피서형궁에니름에밤이임의오경에지내엿
더라던지환시를명하야축을부러히고선랑을답전에갓가이부르샤얼골을들나하시고

즈세보시더니대경왕엇지괴이호일이아니리오하늘이너로써짐을도으시도다내임
의네얼골을몽중에보앗스니향일분면후장으로풍류를넉히세고짐을벗들던재아니
료하시고인하야형궁에삼부신말숨을일일이설과하신후지삼보시며스랑하샤문왕
네능히글즈를아는다선랑왕조박을히득하느이다던지지필을주샤선랑으로하여금
전교를쓰라하시고친히부르시니그전교에대강왕

朕昏暗 忠言 虛謊 秦皇漢武

짐이호암하야충언을멀니하고허황함을밋어진화한무의어두운허물을스스로써

뜻지못하더니연왕양창곡의쇼실벽성선이렬협지풍과충의지심으로천리히상에

三尺琴 織織玉手 珠絃 往牒所無 前古未聞 朕 近日一夢 浮雲

삼척금을안아섬섬옥수로주현을호번설침애령령칠현에하풍이나라나부운을쓸

고일월지명이네빛을차즈니이노왕렴소무오전고미문이라짐이근일일몽을엇으

니몸이공중에떠려져십분위리하다가일기쇼년이붓들어구함을보앗더니이노엇

지하늘이주신배아니리오짐이이제왕사를싱각함에모골이송연하야그위리함이

天上 碧城仙 御史

던상에떠러질뿐아니라만일벽성선이아닌죽엇지오날이잇스리오벽성선은어스

대부를비하야충성을표하고연왕양창곡은좌승상을도도와부르고윤형문소유경

諸人 一邊罪 赦 明日內 還宮 節次 磨練 入稟

제인은일변죄를사하고명일너로환궁할절차를마련임품하라

선량이 쓰기를 못침애상이 좌우를 보사 필법을 칭찬하시며 왈 짐이 이쥬서를 특별이 너
 로 쓰라 함은 네직간하든 충성을 던하에 반포코져함이 라하시고 다시 천필로 너어스벽
 성선륙조를 홍지에 쓰사 선량을 주시니 선량이 돈슈스왈 신첩이 본디가 부를 조차져 소
 로 가는 길이라 곳하여 위국 효충코져함이 아니오니 복원 폐하느라 짐을 거두시고 그도
 라 감을 허하신 즉던은 이더욱 망국 할가하느이다 던지 쇼왈 짐이 장차 명일 환궁 할지니
 랑은 후거를 조차 부중으로 도라가 연왕의 환가함을 기드리라 선량이 돈슈왈 신첩이 변
 복출문하야 산슈간에 든이나 오히려 참피하든이 제엇지 천승만기를 조차형지의 열
 을 함을 도라보지 아니하리 잇가 신첩이 일필 청려와 일기 동지 잇스오니 의 구이 록슈청
 산에 쥬적을 금초고 촌촌 전진하야 도라 감이 구구 소원이로 소이다 던지 더욱 그 뜻을 과
 득이 녀이 사 패히 허락하시고 형조를 후이 주시며 초창면계하사 셤니 황성으로 오음을 하
 교하시니 선량이 즉시 던지 쥬하직하고 노쥬량인이라 귀를 모라 표연이 형하시라 츠시
 던지 왕스를 혼추회하심애 고국에 도라가실 무음이 살코흐 사법가를 지축하시니로
 군동홍이 잔상이 탄로하야 다시 경륜이 업는지라 곤 혼증승이 사름을 상하고 궁 혼도적
 이 악심이 성기느니 잔악 혼무음이 궁진 혼디 경에 밋쳐 흥역의 심스를 포장하고 상디하
 야 반흔 쥬를 미리의 론하나 창졸에 기회를 엿지 못하더니 의외 산동 태슈의 급흔 표문이
 니르니 그 표문에 왈

北單于胡兵十萬騎 鷹門塞方 太原 兗州
 북선위호병십만기를 거느려 안문서방으로 태원싸를 지나 임의 연쥬디경에 니르니

山東

北匈奴 皇城

氣勢強盛 風雨 未久 山東城 大軍
 기세강성하야 그 셤음이 풍우갓흔지라 미구에 산동성을 범할가하오니 셤니 대군을
 발하야 밤비치쇼셔

던지 보시고 대경하사 좌우를 보시며 단왈 이는 반드시도성이 위임을 알고 북홍되이
 치급히 모라드러움이 라 짐이 이제 도라갈 길에 멀고 황성 쇼식을 드를 길이 업스니 외로
 이 이곳에 안져누구와 더불어 의논하리오 좌위왈 일이 급하오니로 참정을 불너 의논하
 심이가 할가하느이다 츠시로 군이던조의 미라하신 모양을 알고 칭병하고 처소에 누엇
 더니이 쇼식을 듯고 희석이 만면하야 꺾연이 나러 안져 성각하되 이는 하늘이로 부를도
 으사 지성 할피회를 빌니 심이로다 호병의 형제이갓치 급하나 내맛당히 쥬원출전하야
 만일 성공하즉 쥬연속죄하고 스업이다 시빗날 거시오스기 불행하즉 출하리 피발죄임
 하고 선우를 조차 북으로 도라가 호왕부귀를 누리리라 폐교를 덩후형궁에 니르러 던
 지 쥬외읍고북디 청죄왈 신이 불충하와 폐하로 츠디에 변을 당하시게하니 맛당히 부월
 지쥬를 도망치 못하려니와 목금스세 위급하와 좌우에 일기 장쥬업고 호병이 도라가 실
 길을 막스오니 실로 묘방이 업는지라 신이 원컨대 절월을 빌어 시위 혼우림군과 이근쳐
 도병을 도발하야 래청진인을 다리고 나가 선우의 머리를 취하야 불충하죄 들속 할가하
 느이다 던지 침음량구에 또 혼다른 경륜이 업는지라 이에로 참정의 손을 잡으시고 단왈
 괴왕 지스는 집의 불명 혼연 괴라 엿지 혼갓경의 죄뿐이 리오 금일을 당하야 추회하느니

靑州

淸道、三山

匈奴、冒
漢太祖高
皇帝、白
登、漢武
帝平城、
耶律單于

음은군신이일반이라엇지서로개회함이잇스리오경은과도이치인치말고다시충분
을내여짐을도으라로군이옥슈를밧들고빅슈에루쉬려지며왈성피이에밧츠시니
엇지견마지력을다하가지아니리잇고던저위로하시고즉시로경노대도독을빅
하샤우림군칠천과외청주도병오천기를거느려가게하시니로군이즉시래청진인을
보고왈국운이불형하야이제호병이산동성에너른다하니만성이황명을밧츠와그물
니칠방략을제듯지못하오니북원선성은북히크르치쇼셔진인이쇼왕빈도는부운중
적이오물의한인이라옥경청도에길을못고십슈삼산에쇼식을전함은후능함이잇스
려니와국가홍망과시석풍진은산인의알배아니로소이다로군이눈물을흘니고살어
고왕선성의말씀이이에밧츠심은만성의명이진할때라금일선성을청함도만성의호
바오던즈를도아봉선함도만성의호배라만성은드르니결재히저라하니브라건대만
성의낫을보아다시싱각하쇼셔진인이쇼왕참정은무단함사됨을너모괴롭게하는도
다스세임의이러할진대빈되맛당히일비지력을도으리라로군이대회하야즉시래청
진인파던즈씩하직하고군스를거느려산동성으로가니라차설홍노목류은북호중강
흐종략이라한래조고황데빅등철일의곤함을겨고한무대의웅제대략으로도평성지
치를신설치못하니그강함을알지라당송이리로종략이번성하더니명나라에너르러
야를선위려력이과인하야힘이능히털구를끈코성품이흥녕하야아비를찬탈하고군
스를길너미양중원을엿보더니간신이쇼당을탁란하야연왕의원찬함을듯고야들이

拓拔、刺
陰山、漢
蒙、古、堆、
遼、東、廣
寧、碣、石、
馬、邑、朔
方

대회왕하늘이중원일국으로써나를주시도다양창곡이쇼당에업스니내누구를잡하
리오하고일변군스를밧하야중국을침노코저하더니로군이던즈를뵈셔동으로봉선
하고민심이리산하야나라를원망함을보고선위창을들고너러서며왕이정히중국을
취할때로다하고군스를두길로난화호장척발말은이만기를거느려음산한양으로몽
고회를지나료동광녕으로갈척을넘어화성을범하라하고선위스스로심만대군을거
느려몽고병을합하야마읍사방으로바로산동성을취하야던즈의대로를막고즈음을
결하라하니라차설호장척발말이대군을거느려광녕료동으로갈척을넘어바로화성
을향하고호호탕탕이모라오니훈곳도방비함이업는지라감국대신이바야호로세듯
고성문을닫쳐군스를도발코저하나오영장졸이임의다도망하고문무빅관이쳐즈를
보전하야피란하는재길을엿허성중에곡성이진동하거늘황래휘비록엄교를느리샤
감국대신을척하시나무슴방략이잇스리오호병이승야함미하고부문을쳐침애황래
휘비빈과궁인을다리시고봉련을코초지못하야돌씩오르샤남문으로나심애환시익
레조치는재불과수십여인이라수리를형하샤뒤를도라보시니성중에화광이충던하
고로략하는호병이임의스면에편만하엿더라일기호장이일디호병을거느리고길을
막아시살하거늘익레비록힘을다하야싸호나엇지더당하리오태후량면이물을채쳐
분찬하야빅성에게석기여간신이일도쇼로를조차화를면하시고다시뒤를도라보시
니다만익레수인과오륙기궁녀씩드러라궁인가씨래후씩고왕호병이이코치미만하

앓스오니평디를보리고산증을향하샤날이복음을기드려안신하실곳을구함이가흐
 가흐니이다래휘그말을올히녀이사죽시길을보리고산에오르시니이때에새벽들이
 의회하야다행이산중길을분변할지라피란하느빅성이산곡에덥히여창황흔괴상과
 수란흔곡성이물살듯하니겨우수십여리를다시행하샤래후량면이안마에로록하심
 을이과지못하샤옥례심히불평하시니물을차차물나하시고좌우를보샤왈이곳은어
 느싸이노내목이므르니엇지면흔그릇물을엇어마시리오하시거늘가공인이이말습
 을듯고눈물을흘니며물개느려산중류슈를차즈니비록물이잇스나그릇이업는지라
 목업을싸물을음키여래후씩드리니래휘두어목을마스시고탄왈로신이부질업시
 오래살아의외이런고초를맛나니엇지합연이모름만하리오이제항비업시행하야장
 츠어되로가며만일호병을맛는죽엇지하리오가공인왈신첩이비록산중리수를괴여
 지못하오나이곳산세를봄에반드시도관고찰이잇슬가하오니량량은옥례를보중하
 샤일시익운을설워말으쇼셔언미필에홀연풍경소리들니거늘가공인이물을노아압
 히서며래후씩고왈이반드시암저로소이다하고길을차자동구에니르러가공인이홀
 연늘나며반겨왈이곳이다른곳이아니라황상을위하야스시고도하든산화암이로소
 이다래휘역시다행이녀이사암전에다다라보심에암문이닫쳐잇고다만삼스기니괴
 잇거늘곡절을무르대니괴왈모든너승은호병이니름을듯고이암조는길에서멀지아
 니흐지라화란을피하야각각도주하코빈도등은로병하와암조를직회고죽기를조쳐

흠이로소이다니괴말하며일변가공인을보고반거마즈며래후량면이니르심을알고
 암중에좌영후차를드리거늘래휘바야호로정신을진정하샤왕세스를알길이업도다
 로신이엇지산화암에올줄알앗스리오내황상을위하야초처에년년괴도흠이잇더니
 이제황상이천리밖게계시샤이러흔란을당하니안위길흥을축량치못하리라로신
 이맛당히불전에축슈하야만세무양하심을발원코져하노라하시고즉시일쥬향을가
 지샤례불심축하시며추연할루하시더라가공인이래후의심회를위로코져하야되시
 고암중에구경하실시행각에니르러괴실에인척이업고신음하는소리나거늘문을열
 고보니일괴쇼년이일괴동조와방중에누어병든모양이라가공인이그쇼년을보고대
 경하니엇더하사름인고하회를보라

데삼십이회

괴이흔썬를써선량이오랑캐를속이고

큰의를썬내야래애군스를니르키다

用奇計仙娘誑胡 奮大義太爺起兵

각설선량이런조씩하직하노쥬량인이다시라귀를모라행할서심중에성각왈런저
 임의샤명이게시샤상공을부르시니영화로도오실지라내이제남으로가무엇하리
 오맛당히황성으로가라하노고부향하야산동디경에니르니분찬하는빅성이길을덥
 혀선우의대병이장촉니른다하거늘선량노쥬대경하야쥬야로행하야황성빅여리밭

깨닫쳐다시덤화판에 탁신홀가갓앗더니 관중이 뷔고 일기도 서 업거늘 갈바 이 업서 산
 화암을 차자니름애 또 혼암중이 수란하야 전일아 든너승이 업거늘 괴실을 빌어 경야 홀
 쇠형역풍로에 축상흔배되야 종야고 통하더니 홀연 밧기 요란하며 피란하느니 빙성이 모
 혀드느니 가하야 더욱문을 든든히 닷고 누엇더니 의외가 궁인이 문을 열매 처음 의회하
 다가 다시 봄애 고인이라 서로 놀나며 반겨 손을 잡고 밧쳐 수작지 못하야 궁인이 셴량
 의 귀에 다치고 마만히 래후량년이 림하심을 통하느니 셴량이 황망이 몸을 니러 하당부 북
 혼대 래휘경왕이 느엇더 혼쇼년인고 궁인이 티왕 셴첩의 동성지 천가 씨로 소이다하
 고인하야 전일암중에서 맛나 수년쇼식을 몰났다 가금일다시 상봉흔스연을 일일 주달
 하니 래휘신기히 녀이 샤왕로신이 그남즈의 용되아 릿다 옴을 의심하얏더니 임의녀지
 오토 혼가 궁인의 동성이 라하니 금일궁도의 상봉홀이 더욱다 정하도다 하시고 당에 오
 르라 하샤다 파를 주시며 가궁인을 보샤 왕이 느진짓 절티가 인이로다 더긋치 유순흔즈
 질로 무슴 환란을 당하야 남북을 남고 산중에 표막하노 셴량 왕 셴첩이 비홀이 업고 셴성
 이 산슈를 도화하야 스방에 쥬류하야 든이 오니 엇지 홀노 환란을 피홀이 리잇고 래휘이
 옥히 보시며 그손을 어루문지샤 각별스랑하시더라 의 일암중에 설셔도 성벽성이 호병
 의로 락홀을 피하야 산화암전후 좌우 언덕과 산이 빈곳이 업스니 익레막대를 들고 일병
 구축왕녀의 이긋치 모혀든 즉도로 허호병을 인유홀이 니셀니다 른곳으로 가라하니 모
 다 올며 고왕우리 래후량년이 이곳에 계시니 응당 적병을 몰나치실 방략이 계시지라우

리여귀를 브리고 어디로 가리오 하거늘 래휘 즉연왕 마만히 두라 하느니 모든 빙성이 산
 상에서 경야 홀셔 연곳곳이 불을 노화연과 화광이 자욱하더라 초호병이 멀니서
 화광을 보고 니르러 시야삼경에 암중을 에워싸고 합성이 대작하니 래후량년과 비빈궁
 인이 서로 붓들고 올며야 모리 홀줄 모르더니 일기 호장이 크게 웨여 왕명래 휘이 곳에 계
 시니 우리 맛당히 되셔가 장군씩드려 공을 청하리라 하고 덜동긋치 에워싸드러 오거늘
 래휘이 거동을 보시고 가궁인을 보샤 왕고 언에 운하되 살아 육됨이 죽어 쾌홀만 못하다
 하니 내 비록 불스하나 당당 혼만 승던즈의 모휘라 엇지 북호를 디하야 살기를 빌니 오출
 하리 이곳에서 죽을지 나니 의는 황후를 보호하야던즈의 계신 곳을 차자로 신의 유언을
 주달하라 하시고 유언을 하느니 유언에 왕

死生 有命 國運 在天 人力 母之之情 貴賤 一般
 스성이 유명하고 국운이 지던하니 인력으로 못할바라 모지정은 귀천이 일반이라
 天顏 冥冥 夜臺 魂 皇 上 無窮 之 勵 玉 體

地 下 陰 王 胡 兵 滅 平 城 之 耻 玉 體

盧 均 燕 王 胡 兵 滅 平 城 之 耻 玉 體

래휘언필에 저경코져 하신대 황후비빈이 일시에 붓들고서 동공하니 가궁인이 울며
 고왕우리 래후량왕의 지인지 하심으로 엇지 출아 이거조를 하느니 잇가 비록 일서
 지욕을 참지 못하샤 합연이 모르고져 하느니 천리 밧게 망연이 모르고 안조신우리 황

紀傳

상의정디들싱각호쇼서태조고황대적덕루인호심으로수빅년송새이긋치덧업시망
 치아니홀지니만일타일호병을멸호고던지환국호샤이일을알으신죽호저지심에장
 못엇더호시리오래휘눈물을흘니시며단왈내엇지를싱각지못호리오마는정세이
 못치위급호고슈하에흔군식업스니아모리성로를구호나엇지못호가호노라인미필
 에홀연좌중에일키쇼년이나서며래후씩고왈일이급흔지라신첩이비록한나라그신
 의충성이업스나맛당히호병을흔번속일지니랑랑은첩의옷을밧고아남으시고피화
 호샤옥테들보중호쇼서첩이맛당히랑랑의몸을디신호야호병을당호리이다호고저
 귀의남은남복을버셔밧들어래후씩드리거늘모다그사름을보니이에각실에누엇든
 쇼년이씨래래휘쇼왕랑의충성이극진호나로신이이제여년이불원흔인성으로엇지
 이긋치구차흔일을헿호리오그쇼년이개연왕랑이이긋치싱각호심은만세야야를
 도라보시지안님이로소이다구차흔성로를두고흔번불헿음을쾌히녀임은려향천인
 편협흔일이라넛적의한래조고황대빅등철일의욕을보앗스나슈치를참고권도를헿
 호야화를면호얏샤오니엇지일시익운을인연호야천추만세에우리황상으로불효지
 명을드르시게호랏호시느니잇가언필에남복으로래후신상에더호며다시중용고왕
 스그점점급호오니랑랑은저저치마르쇼서호고다시쇼청의옷을벗겨황후씨남으심
 을저촉호니가궁인파모든비빈이일시에량면을밧들어남복을기착호신후선랑노쥬
 이에량면의복식을장속호고선랑이가궁인을보며왈그되는썰니량면을모셔압후로

조차랄신호야보중보중홀지어다만일죽지아니홀죽다시상봉홀가호노라가궁인파
 좌우궁내일시에눈물을씩려작별호고량면을되셔압후로조차산을득마만히헿호니
 선랑노쥬의구이압문을닫치고안젼더니호병이문을써치고돌입호거늘선랑이짐짓
 슈건으로써얼골을마리오고크게호령왈내아모리곤경에너르릿스나네엇지감히이
 못치무레호리오호장이고왕우리곳호랑왕을해치지아닐지니다만썰니헿호게호
 쇼서호고적은수리를가져선랑노쥬를겁박호야호진으로가니초시호장척발날이황
 성을함몰호고래후와궁속을차즈니임의가신곳이업는지라스면으로구호더니호병
 이일량쇼거에선랑노쥬를사로잡아니르거늘척발날이대희호야군중에볼모잡아두
 라흔대선랑이쇼청을보며단왈우리노쥬만스여성으로죽을곳을엇지못호더니이제
 나라를위호야충혼이될지라비록여흔이업스나천흔몸으로량면을디신호야오래명
 호를보히지못호죽욕됨이적지아닐지니맛당히흔번쾌히쥬짓고스성을결단호리라
 호고죽시수리문을열고랑랑이소리왈무도호호오랑개하늘놈음을모르느도다우리래
 후랑랑은당호흔만승련즈의모희시라엇지너의진중에림호시리오나눈이에래후궁
 시너가씨라네감히죽이고저홀진대썰니죽이라흔대모든호장이이말을듯고바야호
 로속은졸알고대노호야해치라호니척발날이말녀왈내드름애중국은례의지방이라
 호더니과연허언이아니로다이는의잇는너저라호고인호야군중에두고좌우를단속
 호야극진이공경호더라차셜래후일헿이초시를득임의화를면호섯스나선랑의스성

을 모르샤 촌아 너지 못하야 가궁인이 하로 눈물로 호잉하더니 홀연 또 함성이 대작하며 일
 디 호병이 길을 에워 엄살하니 풍진이 창던고 창검이 비발치듯하야 분찬하느니 백성을
 어드러이 짓치니 남녀로 쇠업더져 흉곡지성이 물설듯하며 백일이 무광하고 던디 참담
 하더라 태휘안던 장안왕 신명이 돕지 아니하시니로 신은 비록 합연하나 앓가을바업스
 오니 황후비빈은 청춘지년이라 장춧엇지 호리오하시고 가궁인을 보샤 왕내이 제괴운
 이 업서 물찌붓치지 못하노니 너의는 다만 황후를 보호하고로 신을 고련치 말라하시고
 마상에 썩러지고져하신대 모다 올며 일시에 붓들어 아모리 홀졸을 모르더니 홀연 호병
 이 요란하며 일기쇼년 장군이 쌍창을 춤추어 무인디경고치 좌충우돌하니 이는 엇더
 사름이 노차설양태연왕이 남행후에 윤각로 향장을 빌어 혼술을 다리고 나가있더
 니 불의에 호병이 범결호쇼식을 듯고 개연류태하며 윤각로와 상의왕이 제황상이 천리
 밤게게시고 적세이긋치급하니 우리엇지 직척업슴으로 만히안져태후량년의위티
 호심을 보호치아니리오 맛당히 동중장등을 도발하야 혼번죽기로써 망극하신던은을
 일분이나 갑스를 가하노라 윤각로결연이니러나며 왕양형아로 휘바야 호로이틀성각
 하더니 엇지 시각을 지체하리오언미필에 황성으로 급퇴이르러왈거야 삼경에 호병이
 임의도성을 함몰하고태후량년이 필마로성의에나샤가신곳을 모른다하시니 윤각로발
 을구르며 가슴을 두드려북향동공하고분함을이기지 못하야 혼대양태여개연위로왈
 국개불행하야 임의이디경에 밋쳐스니 금일우리 황상의신조된재맛당히진력하야량

던가신곳을차자죽기로써보호할지니 합하는정신을가다듬어동병을썰니니르키게
 하쇼셔하고량부창두와동중백성을뵈으니오히려오륙백명이라태여일지련손야차
 를블너의병을나리히느낯을말하며긋치감을말하니량인이개연응명하고죽시전일
 전장에쓰던전포와마필궁시를장속호후황성으로향하야나아갈시량년게신곳을무
 를뒤업는지라다만동남간을보라보고잉하며호병둔취호곳을충살하더니호곳을비
 라봄애일대호병이행인을에위싸고스면으로짓치는중오륙기녀지궁녀의복석으로
 그중에셔겨창황호읍하거늘일지련이손야차를보아왕이엇지태후량년게신곳이아
 니나하고쌍창을들어중간을충돌하니일기호장이마져대전수합에엇지련랑을덕
 하리오물을싸쳐도망하거늘련랑이창을들고쫓더니홀연멀니셔웨여왕더그가는쇼
 년장군은엇더하사름이노래후량년이여기게시니궁호도적을싸르지말고량년을호
 위하라하거늘련랑이바야호로말을들녀태야와군스를마져일제히태후씨뵈읍고부
 디청죄하니태휘문왕경은엇더하사름이노윤각로주왕신은전임각로윤형문이오더
 신하는연국태야양현이로소이다신등이불충하와량년으로육을당하시게하오니출
 하리죽어모르고져하나이다태휘단왕로신이덕이업고국운이불행하야경등을이긋
 치보니참괴치아니리오이는다경등이쇼등에업고간신이용권현연괴라천리희상에
 황상안부를드를길이업스니세간에이긋치망조호일이다시어디잇스리오인하야문
 왕아싸그쇼년장군은누구노래야왕이남만충용왕의쌀일지련이라향일창곡이남

鎮南城

방에출전하와성금하야 그지조를앗겨다려오니이다래회대경하샤즉시불너마전에
 손을잡으시고좌우를보시며왈이진짓경국지척이오간성지제로다나흘무르시고
 쌍창을천이들어보시며연이소량왈로신이불형하야나라를브리고일신을의탁할
 곳이업더니하늘이너를주시니종금이후는빅만호병이당전하나겉배업스리로다
 하시더라윤각되주왈호병이점점스면에혹혀졌스오니빛비형하심이가할가하느이
 다래회왈경은양대야와상의하야갈곳을당하라윤각되주왈호병이동북에편만하니
 남으로진남성을직힐이가할가하느이다래회조츠샤진남성으로가실시진남성은황
 성남편으로수리밭개잇는성이라산상의성협이견고하야죽히슈성할만하더라손야
 차로선봉을삼고량면과비빈이일지런과물머리를련하야중군이되고각로와대야는
 후군이되야진남성을브라고형하실시래회련랑을자로보샤일시것할떠나지못하
 게하시며마야호로담쇠미미하샤일형이자못수란함을면할너라익일성중에드르샤
 군귀를슈습하고건방군스를부르시니오허려륙철천이라황태회에윤각로로삼군
 도데독을하이시고양대야로부데독을하이시고일지련으로표괴장군겸장신궁중랑
 장을하이시고손야차로선봉장군을하이시니련표괴손선봉이날마다삼군을조련하
 야호병을방비하더라차설츠시련지로군을보내시고형궁에홀노누으샤심회불락하
 심에환시를다리시고루에오르샤형식을굽어보시니하늘에다흔물결이되곳치너러
 나그가를보지못하고고래싸흔과악어의풍랑이바다를뒤집고싸흔움직여자욱흔물

樓樓

괴운이반공에느리여안기와비를일헛더니아이오일류홍일이셔편하늘에빛기고점
 점흔석양이물얼골에비최며홀연난디업는츄총루각이슈상에너러나오치령릉하고
 서괴어리여괴형괴상이천벽가지로변하더니셔풍이너러나며흔번풍랑을거두쳐잔
 곳이업고다만유유망망흔물결이동으로흐를스름이라련지망연이보시고왈이무습
 괴운이노좌위왈이논희상신뤼니이다상이묵묵량구에탄왈인성빅년에천만가지경
 영이도모지더신루와일반이라엇지허황뿡랑치아니리오짐이쇼년지심으로방스의
 요언을신령하고이곳에너니바람을잡고그림즈를붓듬과엇지다르리오만일연왕
 이쇼딩에잇슨즉짐으로이다경에밋치게아니하얏스리라하시며남던을브라읍읍불
 락하시더니홀연남으로량기쇼년이물을달녀형궁을향하야오니그엇더흔사름인고
 하회를보라

데삼십삼회

항서를던져로군이나라를비반하고

털피를모라홍뇌경필을범하다

投降書盧均叛國

驅鐵騎匈奴犯蹕

가설연왕이적소에온후로련애만리에고국이창망하고광음이홀홀하야절제박귀임
 을불개날마다부련을첨망하야군천을스모함이즈연간장이살아지고웃살이너으러
 음을세뜻지못하더라황성가든창뒤도라와조딩소식과가셔를보고던지희상에계심